

임실군, '작약·꽃양귀비' 봄꽃 절정 순창군, 민생안정 대응 지속

봉어섬 생태공원, 26일 정상 운영... 누적 방문객 '16만명 돌파' 관광명소 입증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과 운안면 운종리 일원이 만개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로 화려하게 물들며 전국적인 봄꽃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최근 관광객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봄꽃 절정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6일 정기 휴장일에도 봉어섬 생태공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과 운안면 운종리 일대에는 5월 봄의 절정을 알리는 작약과 꽃양귀비가 만개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옥정호 출렁다리과 봉어섬 생태공원에는 16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주말마다 일평균 7~8천여 명이 찾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단체 관광객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지난 주말에만 1만 7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재 봉어섬 생태공원에는 6,000㎡ 규모에 2만4천본의 작약이, 운종리 작약밭에는 7,200㎡규모에 3만본의 작약이 활짝 피어나 압도적인 꽃의 향연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가을 새롭게 조성한 1만㎡ 규모의 꽃양귀비 단지도 본격적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과 운안면 운종리 일원이 만개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로 화려하게 물들며 전국적인 봄꽃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 개화에 들어가면서, 푸른 옥정호 물결과 붉은 꽃물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붉은 작약과 꽃양귀비, 옥정호의 푸른수면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SNS를 중심으로 '인생샷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군은 봄꽃 절정시기를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초 정기 휴장일인 5월 26일 화요일에도 휴장없이 정상 운영해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옥정호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마감은 운영종료 1시간 전이다.

정기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이다.

아울러, 군은 백일홍과 천일홍, 칸나, 델피늄, 산파렌스 등 20여 종 2만여본의 여름꽃을 추가 식재해 봉어섬 생태공원의 사계절 경관을 더욱 풍성하게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 및 교통·주차 관리 인력을 집중배치하는 등 방문객 불편 최소화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중등 정세 변수 속 물가·기업·교통 분야 점검

순창군이 중등 정세 변화에 대응해 물가와 기업,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은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관내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을 병행하며 에너지 절감과 유가 대응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바가지요금과 가격 동향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생활물가 관리도 지속 추진 중이다. 군은 생활물품 가격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가격표시제 점검과 매점매석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자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

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원자재와 포장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군은 관내 기업 현장을 방문해 경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 지원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교통 분야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여 향후 유가보조금 관련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순창군은 국제 정세 변화가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 가능한 지원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지역경제 안정과 민생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군중사육 농가 '농업기술 현장 지원'

남원시·국립농업과학원, 사육시설 점검·핵심기술 지도

남원시 신성장산업과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는 지난 19일, 관내 곤충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의 전략산업인 곤충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현장 지원은 갈색거저리(고소애, 밀웬)의 생산성 향상과 사육 시설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고, 남원시와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들은 농가의 사육 시설을 꼼꼼히 살펴며 사육 밀도 조절, 최적 먹이원 관리, 온·습도 조건 설정, 사육 위생 점검 등 고품질 곤충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직접 지도하고 현장 작업에도 일손을 보탰다.

이번 기술 지원은 남원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에 첫발을 댄 2024년에 발맞춰 곤충산업을 시작한 청년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그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특히 거점 단지의 성장을 같이하는 '정책 동반자'로서,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구상과 지역 농가 간



상생 협력 모델 마련에 앞장서고 있어 핵심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는 농가이다.

해당 농가는 "거점 단지 인프라와 연계한 이번 기술 지도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는 큰 마중물이 되었다"라며, "남원의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시는 이번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립농업과학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사매면 일원에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전처리, 가공, 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전국적인 산업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대중교통비 (K-패스) 환급 혜택 확대

남원시가 고유가 시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대중교통비(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민생대책의 일환인 이번 조치는 올해 4월부터 9월 이용분에 한해 적용되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K-패스 전용 카드 발급 후 앱이나 누리집에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급 유형은 기본형과 정액형 두 가지로, 기본형의 경우 월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오전 5:30~6:30 △오전 9:00~10:00 △오후 4:00~5:00 △오후 7:00~8:00) 이용 시 환급률이 30% 추가 적용, 이에 따라 △일반 50% △청년·어르신·2차녀 60% △3차녀 이상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는다.

정액형은 월 이용 요금이 기준선(△일반 2만 5,000원 △청년·어르신·2차녀 2만 1,000원 △3차녀·저소득층 1만 7,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혜택 확대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절감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순창군은 지난 19일 안보의식 함양과 비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공습경보 발령 시 신속한 주민 대피와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조정희 순창군수 권한대행과 필수요원을 제외한 순창군청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민방위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대피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군청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지하대피소에서는 순창소방서 이장교 소방교의 주재로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현장 교육이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가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의 첫 시작으로 지난 19일 오후 3시, 광지 북학문화센터에서 조웅래(쥬션양소주 회장)를 초청해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과 근로자는 물론 시민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발상과 도전정신을 통한 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웅래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혁신

기업가'로, 최근 광고 모델로 직접 나서며 대중과 거리를 좁히고 유튜브를 통해 소탈한 일상을 공유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조 회장의 친근한 소통 능력이 청중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조웅래 회장은 고정관념을 깨는 역발상 경영 철학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중소기업 생존 전략 등 본인의 생생한 경험담을 특유의 소탈하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혁신의 에너지를 선사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7월 AI 활용 방안, 9월 법정부무교육, 11월 산업안전 교육 등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은 남원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면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정 임실 가꾸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접수

임실군이 축산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축산업 허

가를 받은 관내 농가다. 지정 기준은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등. 주요 평가 항목은 농장 주변 청소 및 조정 상태, 악취 발생 현황,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 저감 시설 가동,

깔짚 관리 등이며,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농장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소독 시설 가동, 사육밀도 준수, 기록관리 등 '기본요건 확인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행정직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